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 본문

시 92:1-8

■ 시작 찬송가

15, 93, 304장
(통 55, 93, 404장)

■ 헌금 찬송가

302, 407, 539장
(통 408, 465, 483장)

▶ 하나님

1. 하나님의 명칭

- 1) 구속자
(시 78:35)
- 2) 기도를 들으시는 주
(시 65:2)
- 3)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시 68:19)
- 4) 영원하신 하나님
(사 40:28)
- 5) 전능하신 하나님
(창 17:1)
- 6) 크신 하나님
(시 95:3)
- 7) 영광의 하나님
(행 7:2)
- 8)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 1:5)

시편에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나타납니다. 다윗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러한 시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지혜'입니다. 성경에서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얼마나 많이 알고, 어떻게 좋은 판단을 하는지를 말하지만, 성경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올바른 판단력은 많이 아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이야 말고 '가장 뛰어난 지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 111:10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시 95:3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시 135:5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시 145:3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만나려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문제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의 문제가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1969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차 두 대 중 한 대는 온전한 상태로, 다른 한 대는 유리창을 살짝 깨놓은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온전한 상태의 차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유리창을 살짝 깨놓은 차량은 중요한 부품들을 도난당한 것입니다. 이 교수님은 실험을 통해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손상된 부분이 있을 때 그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중요한 이론(깨진 유리창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깨진 작은 유리창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문제가 있을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너무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본받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눅 22: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는 대부분 문제를 쉽게 여기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문제를 어렵게 여기고, 풀기 힘들어 하면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과 달리 인간은 우둔하고, 부족하여 다 알지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크게 보라'라는 말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끝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귀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문제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중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반복하여 읽어봐도 다윗이 골리앗을 우습게 생각한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도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알았고, 그의 능력과 실력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알았습니다.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 92:5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여러 가지로 노래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큼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으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어리고 미천한 목동 다윗을 선택하셨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시 92:6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둘째,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풀과 같습니다. 풀은 자랄 때 갑자기 크고, 사방으로 퍼져 나가지만, 한순간 마르고 시듭니다. 이와 같이 ‘약은 반드시 패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패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패배한다’, ‘진다’라는 의미이고, 또다른 하나는 ‘멸망한다’,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패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반짝이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 92:7 악인들은 풀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 92:8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시편 92편은 대비법을 통해 우리를 더욱 깨닫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풀과 같은 세상의 잠깐의 영화’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영화’입니다. 성도는 풀이 아닌, 백향목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심겨질 때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 같이 성장합니다.

시 92:12-13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어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크신 하나님의 완전하심

마지막으로, 성도는 ‘인간의 큼’에 대한 이해가 때로는 ‘하나님의 크심’의 이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위대함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영화 “어드립트(Adrift)”에서 남녀 주인공은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 배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남자 주인공은 크게 다칩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 여자 주인공은 옆으로 지나가는 배 한척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배를 향해 간절히 구조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배가 너무 큰 나머지 주인공들이 타고 있던 작은 배는 보이지 않았고, 간절한 외침 역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커지면, 못 보고 못 듣는 것이 생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는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크시고, 완전하시며, 또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 92:15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오늘의 한마디

문제가 크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크며, 하나님은 가장 크십니다.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입대자,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2. 하나님의 영원성

- 1)영원하시다
(창 21:33)
- 2)영원한 이름이 있으시다
(출 3:15)
- 3)만세전부터 계셨다
(시 93:1)
- 4)영원무궁하시다
(출 15:18)
- 5)영원토록 지존하시다
(시 92:8)
- 6)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계 11:17)

3.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 1)하신 일
(신 32:4)
- 2)지식
(욥 37:16)
- 3)뜻
(롬 12:2)
- 4)도
(시 18:30)